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층위관계와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김 권 구*

- I. 머리말
- II. 사례검토
 - 1. 층위상 안정적인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확인된 사례
 - 2. 지상에 노출된 유구에 새겨진 암각화
- III. 청동기시대 암각화에 대한 층위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 1. 층위관계와 편년의 검토
 - 2.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 IV. 맺는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편년을 층위관계와 암각화 문양의 내용검토를 통하여 추적하고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찰하는데 있다.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 개석을 포함하여 보성 동촌리 1호지석묘의 개석과 석관 벽석에서 확인된 성혈과 박편의 제작시기인 청동기시대 토층에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고령 봉평리암각화에서의 층위관계, 사천 본촌리유적 나 10호주거지 출토 동검암각화 지석, 밀양 살내유적II 제1호 지석묘 출토 동검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 ggkimdream@kmu.ac.kr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암각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층위관계 속의 고고학적 검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설사 청동기시대 지상에 노출되었더라도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 암각화, 대구 진천동 입석의 암각화, 여수 오림동 5호지석묘 상석의 암각화도 청동기시대 유적에 청동기시대 유물을 모티브로 하거나 그 당시 사용되는 문양을 사용하는 암각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증적 증거이다.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검, 축, 동심원(나선형), 성혈 등 다양한 암각화 문양이 사용되고 청동기시대 후기에 더 많이 남한지역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기 암각화자료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사용과 확산배경 중의 하나로 농경정착사회의 장례의례와 조상숭배가 관련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동기시대 조상숭배를 강조하는 정착농경사회의 발전은 지석묘문화와 결합한 암각화를 발생시킨 여러 원인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 주제어

암각화, 층위관계,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정착사회, 지석묘문화, 조상숭배

I. 머리말

지석묘의 상석에 있는 성혈을 포함한 암각화는 청동기시대 농경사회의 기념물인 지석묘의 상석에 파여져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암각화라고 추정되어 왔고 그러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도 그러한 견해가 옳다고 보지만 그래도 청동기시대에 축조된 지석묘의 상석에 시간이 지난 후대에 새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음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그 동안의 선사시대 암각화의 연구는 주로 암각화의 문양의 양상을 통한 형식 분류와 상징성¹⁾, 제작기법²⁾, 동북아시아 및 시베리아지역 등 외국 선사시대 암각화 문양과의 비교³⁾, 생태적 특성과 계절성⁴⁾, 신앙과의 관계⁵⁾, 고고학적 층위관계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편년논의⁶⁾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인 층위관계

- 1) 황수영 · 문명대, 『반구대암벽조각』, 1984, 동국대학교박물관.
임세권, 「한국 암각화에 나타난 태양신 숭배」, 『한국암각화연구』 창간호, 1999, 7~26쪽.
신대곤, 「신채문암각화의 해석」, 『과기고고연구』 3, 1998, 65~124쪽.
- 2) 황수영 · 문명대, 앞의 책.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세선각화 연구」, 『울산연구』 1, 1999, 9~43쪽.
- 3) 임세권, 「알타이 지역 암각화에 나타난 태양신 숭배」, 『선사와 고대』 26, 2007, 119~146쪽.
복기대, 『동북아시아 바위그림 연구』, 주류성, 2016.
- 4) 이상목, 「울산 대곡리 반구대 선사유적의 동물그림-생태적 특성과 계절성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52, 2004, 35~68쪽.
- 5) 장명수, 「암각화를 통해 본 고인돌 사회의 신앙의식-고인돌 암각화에 비쳐진 죽음관을 중심으로-」, 『중양사론』 8, 1995, 81~101쪽.
장명수, 「암각화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선사인들의 신앙 사유」, 『한국암각화연구』, 창간호, 1999, 27~65쪽.
이하우, 『한국 암각화의 祭儀性』, 학연문화사, 2011.
전호태, 「고령 장기리암각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8, 2017, 291~330쪽.
- 6) 강봉원, 「반구대 암각화에 표출된 육지동물의 재인식-동물사육 문제와 편년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3, 2012, 133~167쪽.
김권구, 「반구대암각화의 편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67, 2013, 118~129쪽.

나 유적발굴에 의한 출토맥락이 확실한 경우를 중심으로 한 암각화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고 그러한 자료가 과거 쌓여 있지 않아서 고고학적인 층위를 토대로 한 암각화의 편년연구와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검토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상석이나 매장시설 그리고 입석에서 확인되거나 주거지 등에서 나온 유물에서 확인된 암각화의 사례를 모아서 살펴보고 그 층위양상이나 출토유물과 유구가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토대를 검토하여 청동기시대의 암각화 존재와 확산요인을 논리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은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층위에서 나온 청동기시대 무덤에서 확인된 성혈이나 암각화에 대한 사례분석도 하고 이와 더불어 지상에 노출되었더라도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암각화의 사례분석도 함으로써 청동기시대 암각화 조성의 양상과 확산요인을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사례검토

1. 층위상 안정적인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확인된 사례

구지표(舊地表) 아래에 존재하는 층위적으로 안정적인 청동기시대의 지식묘와 주거지 등의 유구에서 확인된 암각화의 사례로는 부여 송국리1호 석관묘 개석에서 발견된 성혈, 보성 동촌리 1호 지식묘의 매장주체부의 개석(대형판석) 및 벽석에서 확인된 성혈, 고령 봉평리 소재 암각화 속의 성혈 등 각종 암각화 문양, 사천 본촌리유적 나 10호 주거지 출토 동점암각화 지식, 밀양 살내유적II의 1호 지식묘와 같은 다섯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 개석 위의 성혈

송국리 석관묘군은 송국리 52지구 돌출구릉에 위치하며 송국리일대의 평야지대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⁷⁾. 1974년 최초로 조사된 후 1975년과 1993년에 각각 재조사되어 모두 3차례나 조사된 요녕식동검, 마제석검 등 33점의 부장품이 출토된 유명한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 개석의 윗부분에서 모두 74개의 성혈이 확인되었다⁸⁾.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위상이 높은 무덤에 성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사진1>. 성혈의 양상은 <도면1>을 참조하기 바란다⁹⁾.



<사진1> 부여 송국리1호 석관묘 매장주체부¹⁰⁾

7) 강인구 · 이진무 · 한영희 · 이강승, 『松菊里 I - 本文-』(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1책), 국립중앙박물관, 1979.

김길식,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제9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8, 5~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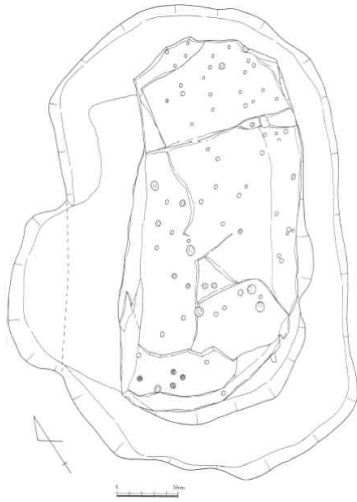
8) 김길식, 앞의 논문, 1998, 9쪽.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송국리』(특별전 도록), 2017, 134~135쪽.

9) 김길식, 앞의 논문, 1998, 41쪽.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17, 135쪽.

10)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17, 134쪽.



<도면1> 부여 송국리 1호 석판묘 개석 위의 성혈

성혈의 크기는 직경 2cm-7cm, 깊이가 1cm-3cm이다. 74개의 성혈 중에서 대부분의 성혈은 직경 2cm-3cm 내외의 작은 것들이지만 3-4중의 동심원상으로 파여진 것 4개가 한 곳에 밀집된 곳도 있다고 발굴자는 보고하고 있다¹²⁾.

2)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 매장주체부 개석과 벽석 위의 성혈

보성 동촌리유적은 낮은 구릉이 뻗어 만들어진 비교적 평탄한 대지의 남사면을 중심으로 득량만을 조망할 수 있는 중심적 지점에 입지한다. 보성 동촌리유적에서는 지석묘 2기와 송국

리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는 다단토광에 여러 겹의 적석층 아래에 매장주체부가 존재하는 유형의 지석묘로서 그 구조상의 특성이 주목되며 창원 덕천리1호지석묘, 창원 상남1호 지석묘, 창원 봉산리 2호지석묘, 김해 율하리 유적에서 확인된 다단토광에 여러 겹의 적석층을 가진 지석묘군 등이 이와 유사한 매장주체부를 가진 지석묘로 판단된다. 주로 남해안 연안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따라서 다단토광에 여러 겹의 적석층이 있고 그 아래 매장주체부가 존재하는 유형의 지석묘들이 분포하는 양상이다.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에서는 관옥 86점이 석관의 중앙부와 서쪽부분에서 출토되었고 유경식의 유엽형석촉 1점이 서쪽 벽석이 빠진 자리에서 출토되었다¹³⁾. 무문토기편 3점

11) 김길식, 앞의 논문, 1998, 41쪽.

12) 김길식, 앞의 논문, 1998, 9쪽.

도 1호 지식묘 바닥석 사이에서 출토되었다¹⁴⁾. 송국리형 주거지를 파손하면서 2호 지식묘가 축조된 점은 적어도 2호 지식묘가 송국리형 주거지보다 늦게 축조되었음을 암시한다. 2단 토광의 보성 동촌리 1호 지식묘는 2단 토광인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가 속한 청동기시대 후기보다 늦은 시기인 청동기시대 후기말엽에 편년되는 유구로 판단된다.

보성 동촌리 1호 지식묘의 경우 매장주체부인 석관의 개석으로 사용된 6개의 대형판석 중 일부에서 성혈이 확인되었다<사진2, 3, 4, 5>. 보성 동촌리 1호 지식묘의 대형판석 중에서 250cm x 130cm 규모의 동북쪽에 위치한 대형판석에서 9개의 성혈이 확인되었고 성혈의 직경은 6cm-8cm이고 깊이는 1.5cm-5cm로 아주 대형의 성혈로 분류된다<사진2, 3>. 1차 적석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60cm x 240cm 규모의 대형판석 1장에서도 무수히 많은 성혈이 확인되었는데<사진4> 대형의 성혈은 직경 5cm-6cm, 중형은 직경 3cm 내외, 소형은 1cm 내외이며 깊이는 대형 1.5cm-2cm, 소형 1cm 내외이다. 원형의 성혈과 구분되는 「┌」자형으로 길게 표시된 성혈은 길이 20cm의 것이 2개, 15cm의 것이 3개, 12cm의 것이 1개, 8cm의 것이 3개이다. 8cm 길이의 「┌」자형 성혈의 깊이는 1cm-3cm에 이른다. 구멍이 파인 성혈과 달리 원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도 3개 확인되었는데 직경이 각각 6cm, 6.5cm, 8cm이고 둘레에는 1.5cm-2cm의 음각문문이 둘러져 있고 높이는 약 1cm-1.5cm 이다. 이와는 별도로 1호 지식묘 매장주체시설인 석관의 동쪽 단벽에서도 성혈이 확인되었고<사진5> 이 벽석에는 성혈을 새기기 위해 일부 마연된 흔적이 확인되었다¹⁵⁾.

13) 송의정 · 은화수 · 최상중 · 윤효남, 『寶城 東村里遺蹟』, 국립광주박물관 · 보성군, 2003, 21~54쪽.

14) 송의정 · 은화수 · 최상중 · 윤효남, 앞의 책, 2003, 107쪽.

15) 송의정 · 은화수 · 최상중 · 윤효남, 앞의 책, 2003, 57~59쪽.



<사진2> 보성 동촌리 1호지석묘 개석 위의 성혈모습



<사진3>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 개석 위의 성혈 전경¹⁶⁾



<사진4>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의 성혈 있는 대형 판석



<사진5> 보성 동촌리 1호 지석묘의 석관 동쪽 단벽 위의 성혈 세부¹⁷⁾

3) 고령 봉평리 암각화

고령 봉평리암각화는 2008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지표조사과정에서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순평마을) 산 102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암각화유적이다. 봉평리암각화는 순평마을 동편 야산 능선 사면의 끝자락에 입지하며 북-남

16) 송의정 · 은화수 · 최상중 · 윤효남, 앞의 책, 2003, 94쪽.

17) 송의정 · 은화수 · 최상중 · 윤효남, 앞의 책, 2003, 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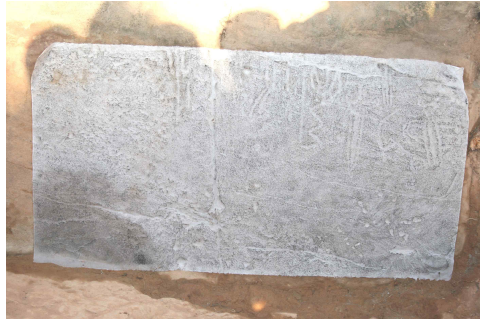
으로 흐르는 대가천의 층적평야인 순평들과 맞닿은 산록에 입지하고 있다. 봉평리암각화는 순평들의 경작지에서 산록으로 20m 올라간 해발 50m 정도의 산록 비탈면의 바위 면에 조성되어 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면의 전체 크기는 길이 450cm 높이 210cm 정도이며<사진6> 봉평리암각화에서는 마제석검형 암각 3개, 비파형동모형의 암각, 무경식석촉, 성혈, 원형암각, 톱니모양의 기하문, 동물상, 형태미상의 사선 선각, 20여개 내외의 쪼은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사진7>. 이 암각화는 암각화의 내용과 주변 봉평리 석기제작장 및 지석묘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고령 봉평리암각화가 주목되는 것은 암각화의 시기를 토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유일한 암각화라는 점이다. 봉평리암각화 바위면의 전면 최하단부에서 70cm 정도 높이까지 퇴적층과 낙엽 등 부엽토로 덮혀 있었는데 표토로부터 15cm 정도 아래까지 부엽토가 쌓여 있고 그 아래 20cm 정도 근대 사방공사 이전의 퇴적층인 황갈색사질토층(제1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약 20cm 정도의 두께에서 소량의 암반부스러기가 포함된 명갈색 사질토층(제2층)이 있고 제2층 아래에서 약 15cm 두께의 최하층인 제3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제3층에서는 비교적 입자가 굵은 다량의 암반편과 석기박편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석기박편이 포함된 최하단층인 제3층은 암각화가 그려진 바위 면을 일부 덮고 있어서 봉평리암각화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제3층보다 먼저 혹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사진8>. 봉평리암각화는 박편의 제작시기인 청동기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층위학적 자료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¹⁸⁾.

18) 정동락, 「고령지역 암각유적의 현황과 성격」, 『고령문화사대계 ④ 예술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2010, 449~569쪽.
신중환, 「고령 봉평리 암각화의 발견과정」, 『한국의 암각화 II-대구 · 경북편』, 울산 암각화박물관, 2012, 248~255쪽.



<사진6> 토층 제거 후의 고령 봉평리 암각화 전경(대가야박물관 제공)



<사진7> 고령 봉평리 암각화 탁본(대가야박물관 제공)



<사진8> 고령 봉평리 암각화 하단부를 덮었던 토층단면(대가야박물관 제공)

4)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 주거지 출토 동검암각화지석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주거지는 평면 방형형태이며 규모는 길이 540cm, 너비 436cm, 잔존깊이 26cm이며 면적은 23.54㎡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중앙에 수혈과 주혈2기가 확인되었고 수혈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최대직경 116cm, 깊이 30cm의 크기이며 수혈내부와 주변에서 크고 작은 지석과 천석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단단하게 다짐 처리되었다. 그런데 수혈주변에서 재가공된 동검 암각화지석이 세부분으로 파쇄되어 흩어진 채로 출토되었다¹⁹⁾. 주거지는 휴암리식 주거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유구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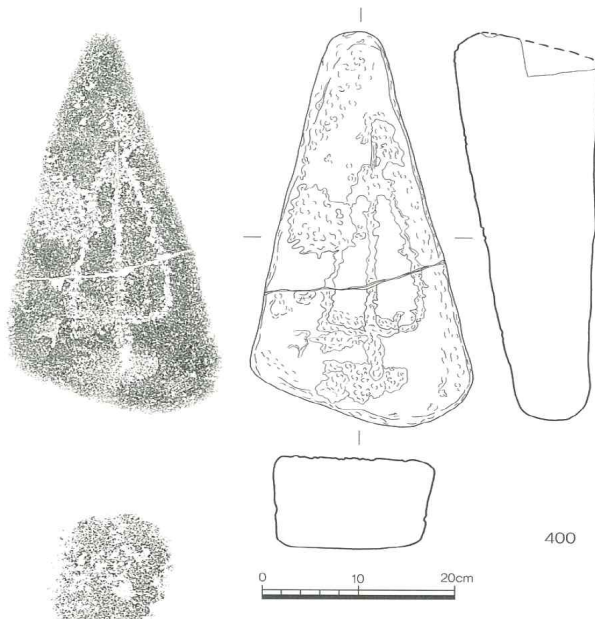
동검암각화는 재가공된 삼각형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등대와 양쪽 인부가 만나는 봉부는 새김면이 넓어져 있고 봉부 경계 위로는 갈아서 새긴 선이 이어지고 그 우측으로는 쪼아 새긴 부정형의 형상이 보이는데, 이 암각화는 결입부에서 재가공된 동검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도면2>. 그리고 손잡이와 결합된 검과두식은 면새김으로 새겨져 있다²⁰⁾.

이 동검암각화 속의 검의 특성이 마치 마산 진동리 비파형동검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암각화가 새겨진 지석이 휴암리식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출토 무문토기발편 등을 고려할 때 비파형동검이 재가공된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동검암각화가 새겨진 지석은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 주거지의 주거지 상면의 수혈주변에서 다른 석재 및 지석들과 함께 출토된 점에서 주거지와 관련된 유물로 판단된다. 이 동검암각화지석과는 별도로 부정타원형의 불명암각화가 묘사된 지석도 역시 사천 본촌리 나10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²¹⁾.

19) 조영제 · 송영진 · 정지선, 『泗川 本村里遺蹟』,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143~144쪽.

20) 조영제 · 송영진 · 정지선, 앞의 책, 2011, 144~146쪽.

21) 조영제 · 송영진 · 정지선, 앞의 책, 2011, 146~147쪽.



<도면2>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 주거지 출토 동검암각화와 검파두식 모습이 보이는 암각화지석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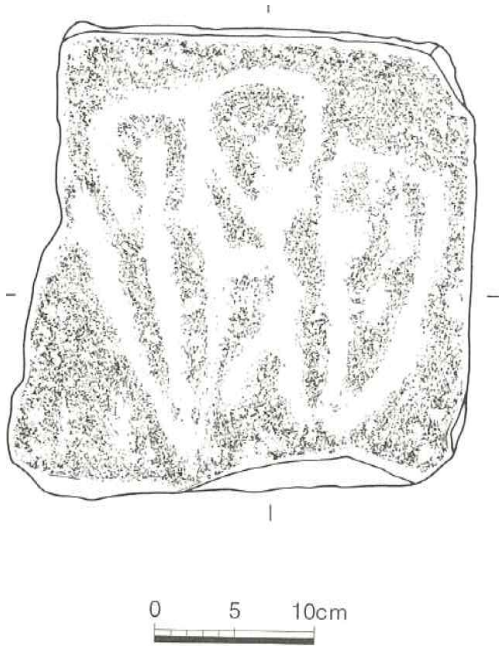
5) 밀양 살내유적Ⅱ 제1호 지석묘에서 확인된 동검암각화

밀양 살내유적Ⅱ의 제1호 지석묘는 가칭 묘역 지석묘의 형태로서 묘역 동쪽의 무너진 구획석 2매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었는데 1매에는 석검1점과 음문처럼 표현된 손잡이와 긴 삼각형의 검신의 끝부분을 이어놓은 그림이 확인되었다<도면3>. 윗부분이 반듯한 돌의 형태나 음문의 자연스러운 방향을 고려할 때 검신의 끝부분이 아래로 향해 놓여 있었을 것으로 발굴자는 언급하고 있다. 돌의 크기는 가로29.5cm, 세로 30cm이다²³⁾. 다른 1매에서도 미

22) 조영제 외, 앞의 책, 2011, 147쪽.

완성의 음문으로 추정되는 형태미상의 암각화 문양이 확인되었다²⁴⁾ 1호 지석묘에서는 묘역 지석묘의 형태이지만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석묘에서는 묘역지석묘의 형태를 하고 있고 구순각목토기,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 내지 초기철기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시기에 속할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한다.



<도면3> 밀양 살내유적Ⅱ 제1호 지석묘에서 확인된 동점암각화²⁵⁾

2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밀양 살내유적 Ⅱ』, 2015, 129쪽.

2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2015, 129쪽, 136쪽.

2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2015, 135쪽.

2. 지상에 노출된 유구에 새겨진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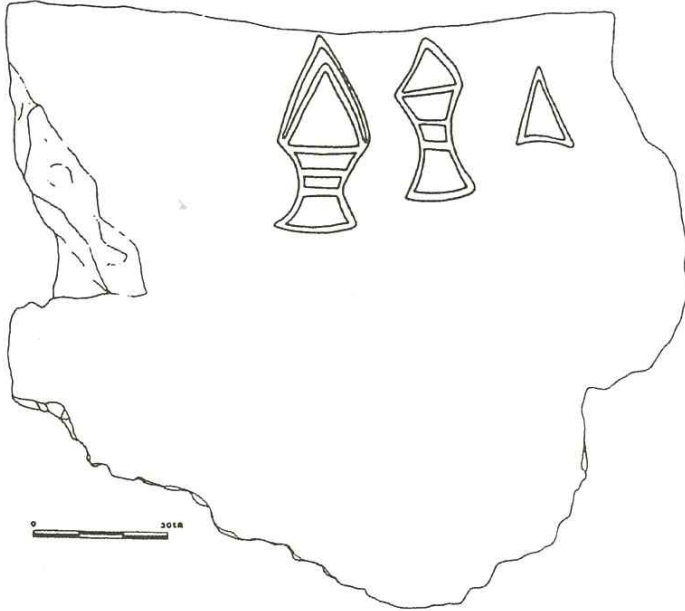
지상에 노출되었던 유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식묘 상석이나 입석에서 암각화가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이들 암각화의 문양이 청동기시대 지식묘의 매장시설에서 주로 확인되는 석검형태이거나 석촉형태이거나 추정 동심원문이나 성혈 등이어서 청동기시대에 새겨졌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층위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도 지상에 노출되었던 청동기시대에 새겨졌던 암각화로 추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 유구의 사례가 포항 인비동 16호 지식묘 상석의 석검모습암각화와 석촉모습 암각화, 대구 진천동 입석의 추정 동심원문 또는 나선형문 및 성혈이 새겨진 암각화, 여수 오림동 5호 지식묘의 상석에 새겨진 일단병식마제석검을 땅 쪽으로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의례를 하는 듯한 모습의 암각화 세 개의 사례이다. 그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포항 인비동 16호 지식묘 암각화

포항 인비동 16호 지식묘의 상석에 이단병식석검 모습의 암각화 문양 2개와 무경식석촉 모습의 암각화 문양 1개가 새겨져 있다.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지식묘의 상석은 길이 170cm, 폭 140cm의 장방형 암석이다. 첫 번째 석검은 칼집도 묘사되어 있는데 검 길이 39cm, 검 손잡이 길이 20cm, 손잡이 하단 폭 22cm, 검신의 최대 폭 17cm, 칼집을 포함한 총길이 46cm이다. 두 번째 석검은 첫 번째 보다 약간 작는데 길이 37cm, 검 자루 길이 24cm, 검 자루 하단 폭 27cm이다. 세 번째의 것은 석촉인지 석창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마제석검과 석촉이 대체로 공반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석촉으로 추정된다. 석촉은 이등변삼각형의 무경식 석촉으로서 횡단면이 편육각형인 것으로 보인다. 축의 길이는 16cm이고 밑변 폭은 14cm이다²⁶⁾.

26) 이진무 · 최종규 · 박방룡 · 김상면, 「월성군 · 영일군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 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1985, 103~157쪽.

이단병식석검이나 무경식석촉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가 편년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도면4>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 상석의 암각화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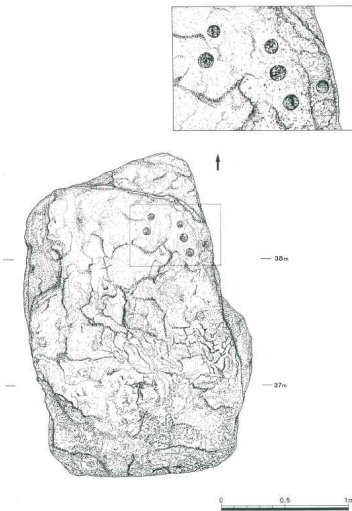
2) 대구 진천동 입석의 암각화

대구 진천동 입석은 기단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높이 2.1cm, 폭 1.5cm, 두께 1.1m이다. 이 입석에는 우측 상부에 6개의 성혈이 있고<도면5> 서쪽 면에서는 4개의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나선형문<도면6>이 새겨져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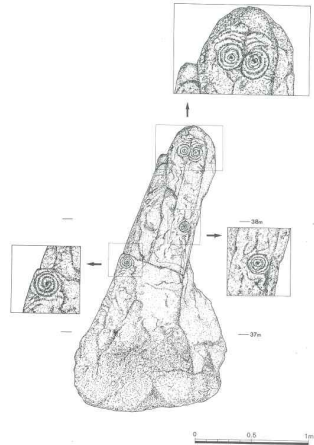
27) 이진무 · 최종규 · 박방룡 · 김상면, 앞의 보고서, 136쪽.

28) 이백규 · 오동욱, 『辰泉洞 先史遺蹟』, 『辰泉洞 · 月城洞 先史遺蹟』, 경북대학교박물관 · 대구광역시달서구, 2000, 15~16쪽, 23쪽.

대구 진천동 입석은 의례제단으로 보이며 석축기단 북쪽과 동쪽에서 5기의 석관묘도 확인되었고 주변에 상당수의 석관묘가 군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진천동 입석은 집단이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장소로 추정된다²⁹⁾. 개별 조상에 대한 제사로서 지석묘 앞에서 제사를 하는 대신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는 기념물이 진천동 입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대구 진천동 입석은 묘역지석묘가 축조되는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에 속하는 의례유구로 판단된다.



<도면5> 대구 진천동 입석의 성형³⁰⁾



<도면6> 대구 진천동 입석의 추정 동심 원문 또는 나선형문³¹⁾

29) 이백규 · 오동욱, 앞의 보고서, 47쪽.

30) 이백규 · 오동욱, 앞의 보고서,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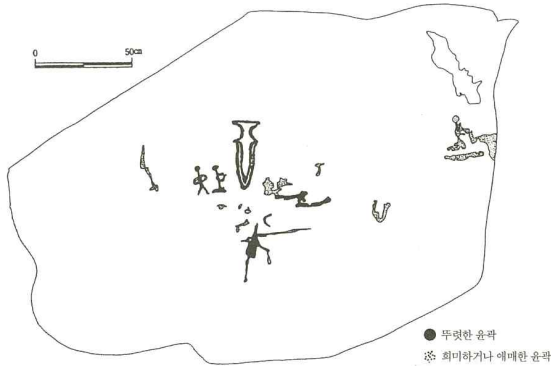
31) 이백규 · 오동욱, 앞의 보고서, 16쪽.

3)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상석의 암각화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의 상석에는 일단병식마제석검을 땅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마제석검을 중심으로 그 앞에 앉아 있는 인물상과 서 있는 인물상 등이 묘사되어 있다<도면7>.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의 상석은 길이 410cm, 폭 276cm, 두께 180cm의 대형이다³²⁾.

지석묘에 일반적으로 부장되는 일단병식마제석검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지석묘와 동일한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마도 암각화의 내용은 장례의례³³⁾나 제사의례 중의 하나를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 오림동 10호 지석묘에서는 출토유물이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병식마제석검이나 인근의 여수 오림동 8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세장형 단면 마름모형의 석촉과 습베에 흠이 있는 비파형동검의 존재를 고려할 때³⁴⁾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 단계의 무덤으로 편년된다.



<도면7>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암각화³⁵⁾

32) 이영문 · 정기진, 『麗水 五林洞 支石墓』, 전남대학교박물관 · 여수시, 1992, 80~89쪽.

33) 이영문 · 정기진, 앞의 보고서, 88쪽.

34) 이영문 · 정기진, 앞의 보고서, 77쪽, 88쪽.

35) 이영문 · 정기진, 앞의 보고서, 81쪽.

Ⅲ. 청동기시대 암각화에 대한 층위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1. 층위관계와 편년의 검토

부여 송국리1호 석관묘 개석의 경우 출토된 요녕식동검, 일단병식마제석검, 세장한 유경식마제석촉 등의 출토유물에 의해 청동기시대 후기인 송국리단계로 편년되며 또 석관묘의 개석에서 다수의 성혈이 확인된 점과 석관묘의 개석이 흙에 묻혀있었다는 점에서 층위상 청동기시대 성혈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성 동촌리 1호지석묘의 개석으로 사용된 대형판석에서 크기가 다양한 성혈이 다수 확인되고「—」자형으로 길게 표시된 성혈, 원형으로 도드라지게 표현된 성혈 등 형태도 다른 성혈이 발견되었으며 석관묘 동쪽 단벽에서도 성혈과 마연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지하에 묻혀있던 지석묘 매장주체부 위의 적석부에 덮힌 개석과 지석묘 매장주체부인 석관의 벽석에서 성혈 등이 확인된 것은 이들 성혈이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석묘 축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새겨진 것으로 보아도 문제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고령 봉평리 암각화도 적어도 석기박편층에 일부 덮혀 있어서 석기제작층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약간 앞설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변 석기제작유적인 고령 봉평리 유적이나 축신 단면 마름모형 세장한 유경식 석촉이 출토되는 고령 봉평리 석관묘나 지석묘 등의 편년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로 추정할 수 있다.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 주거지 출토 동검암각화지석은 휴암리식 주거지에서 출토된 점에서 역시 청동기시대 후기의 초반인 선(先)송국리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편년된다. 또 밀양 살내유적 1호지석묘도 묘역지석묘와 출토유물 속에 구순각목토기,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포항 인비동 16호지석묘, 대구 진천동 입석, 여수 오림동 5호지석묘는 비록 층위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암각화의 내용은 청동기시대 유물이나 모티브와 유사하여 청동기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구사례들은 층위적으로 통계가능한 부여 송국리 1호석관묘, 보성 동촌리1호 지석묘, 고령 봉평리암각화,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주거지, 밀양 살래유적 II 1호지석묘에서 보이는 암각화가 청동기시대에 속함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방증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상에 노출된 경우라도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는 이단경식석검과 무경식석촉의 양상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전기 특히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일 가능성이 있고, 대구 진천동입석도 주변에서 수습된 꼭지달린 토기 편, 유구 석부 등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된다.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도 출토유물은 없으나 일단병식석검과 주변 8호지석묘 출토 축신 단면 마름모형의 세장형 석촉과 습베에 홈이 있는 비과형동검편 등을 고려할 때 송국리단계인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할 수 있다.

2. 암각화 확산의 사회경제적 배경 검토

앞에서 분석한 층위관계상 청동기시대가 확실한 부여 송국리1호 석관묘 등의 5개의 사례와 암각화의 문양내용이나 당시의 유물모티브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지상에 노출된 포항 인비동16호 암각화지석묘를 포함한 3개의 사례도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암각화임이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1>과 같다.

<표1> 충위상/ 문양상 청동기시대 암각화가 확실한 사례정리

번호	유적명	유구의 종류	암각화 내용	충위관계에 의한 시기 통제가능여부	추정시대	비고
1	부여 송국리1호 석관묘	석관묘	성혈 다수	가능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세장한 단면 마름모형 유경식석촉, 비파형동검
2	보성 동촌리1호 지석묘	지석묘	성혈 다수	가능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유경식석촉, 무문토기편
3	고령 봉평리암각화	암각화	다양한 암각화(마제석검형 암각 3개, 비파형동모형의 암각, 무경식석촉, 성혈, 원형 암각, 톱니모양의 기하문, 동물상)	가능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석기박편층에 암각화 일부 덮여 있어서 암각화가 석기박편층보다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라고 추정가능
4	사천 본촌리 나10호 주거지 출토 암각화 지석	주거지 출토 지석	재사용 비파형 동검과 유사	가능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휴암리식 주거지
5	밀양 살내유적Ⅱ 제1호 지석묘 확인 동검 암각화	묘역 지석묘 묘역 시설 구획석	석검모양 암각화 등	가능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구순각목토기, 파수부무문토기, 두형토기
6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 암각화	지석묘 상석	이단경식석검, 무경식석촉	불가능(지표위 노출)	청동기시대 전기	이단경식석검과 유경식석촉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물임.
7	대구 진천동 입석암각화	입석제단	성혈, 동심원(나선형) 암각화	불가능(지표위 노출)	청동기시대 후기	주변에서 수습된 꼭지달린 토기편, 유구석부

8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암각화	지석묘 상석	마제석검 및 의례모습	불가능(지표위 노출)	청동기시대 후기	인근 오림동 8호 지석묘 출토 세장한 유경식석촉과 비파형동검편
---	-------------------	--------	-------------	-------------	----------	------------------------------------

<표1>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지석묘에 암각화가 새겨지는 것이 포함 인비동16호 지석묘에서 확인되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가면서 지석묘 상석과 묘역구획석, 석관묘나 지석묘의 개석, 석관내부의 단벽, 입석, 구릉이나 야산의 바위단면, 주거지 출토 지석 등과 같이 다양한 범주의 유구 또는 유물에 암각화가 새겨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암각화의 내용도 석검, 동심원(나선형), 석촉, 비파형동검, 성혈 등 다양해지고 주로 지석묘나 의례용 입석과 같은 조상숭배의례와 관련하여 지석묘에 부장되는 유물모티브의 암각화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진행된 농경의 확산과 본격화와 관련된 집단 의식강화, 경작지의 배타적 지배와 소유권의 표시와 같은 농경사회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경사회의 기념물인 지석묘와 의례용 입석과 관련된 조상숭배의례 등의 집단 의례에도 청동기시대의 암각화가 영남, 호남, 호서지역에서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석묘를 농경사회의 기념물로 보는 견해³⁶⁾에서 암시되듯 대체로 지상에 조상의 무덤을 보이게 축조하여 집단의 경작지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집단 의식을 강화하는데 지석묘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마도 지석묘가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포함 인비동 16호 지석묘³⁷⁾, 대구 진천동 입석³⁸⁾,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³⁹⁾,

36) 이성주, 「마. 지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423~441쪽.

37) 이진무·최종규·박방룡·김상면, 앞의 글, 103~157쪽.

38) 이백규·오동욱, 앞의 책, 1~90쪽.

39) 이영문·정기진, 앞의 보고서.

밀양 살내유적Ⅱ 제1호 지식묘⁴⁰⁾ 등 지식묘의 상석이나 묘역석(墓域石) 또는 지식묘와 관련된 추상적 조상숭배의 상징물일 가능성이 있는 입석 등에서 나타나는 동심원문, 성혈, 석검문양, 석촉문양, 동검문양 등의 암각화 문양은 농경사회의 기념물인 지식묘와 암각화문화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 지식묘가 유행하던 시기인 청동기시대 전기나 후기(송국리단계)유적인 진주 평거동유적⁴¹⁾,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⁴²⁾, 울산 야음동유적⁴³⁾, 대구 동천동유적⁴⁴⁾, 논산 마전리유적⁴⁵⁾, 안동 저전리유적⁴⁶⁾ 등에서는 경작유구⁴⁷⁾인 논 유구, 밭 유구, 탄화미 등 탄화곡물유체, 보(沃)와 수로 등 농경관련 유구⁴⁸⁾나 유물이 상당수 발굴 조사된 바 있고 팽이, 고무래 등 목제농기구⁴⁹⁾

4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

4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평거3-1지구 유적-Ⅲ:본문-』, 2011.

42) 경남대학교박물관·부산대학교박물관,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2015.

43) 밀양대학교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울산광역시, 『울산 야음동유적-Ⅱ지구 발굴조사보고서』, 2004.

44) 영남문화재단연구원,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2002.

45) 이홍중·박성희·이희진, 『마전리 유적-C지구-』,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한국도로공사, 2004.

46) 동양대학교박물관, 『안동 저전리유적』, 2010.

47) 광종철, 「우리나라 선사 ~ 고대 논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한국고고학회, 학연문화사, 2002, 25~93쪽.

밀양대학교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울산광역시, 앞의 책.

김도현, 「선사·고대 논·밭의 관개시설에 대한 검토」, 『호남고고학보』 18, 2003, 55~81쪽.

김도현, 「선사·고대의 경작 유구에 대한 검토」, 『석헌 정정원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석헌정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6, 171~197쪽.

김병섭,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농경유적 재고」, 『경남연구』 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2~29쪽.

48) 이홍중·박성희·이희진, 앞의 책.

광종철,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의 수리시설」,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서경문화사, 2010, 231~3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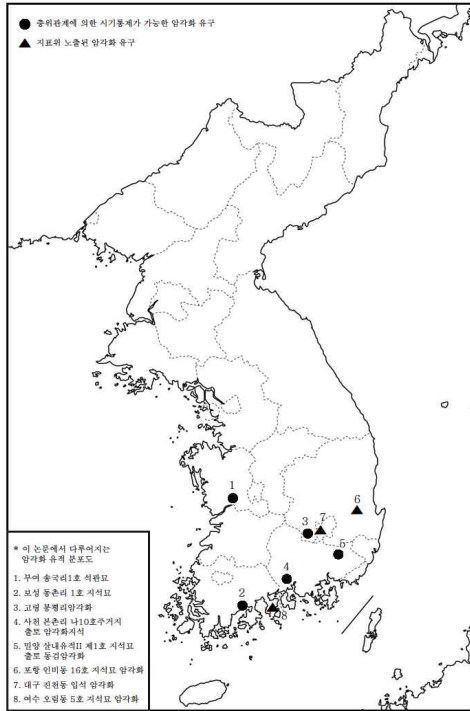
49) 이제동·하진호·허정화·신순철·김지영, 『대구 매천동유적』, 영남문화재단연구원, 2010.

이홍중·박성희·이희진, 앞의 책.

와 낫, 돌칼, 부리형석기 등 석제농기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농경이 심화되어 확산되고 농경도구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⁵⁰⁾. 그리고 창고 등 곡물보관시설로 추정되는 고상가옥 또는 굴립주건물의 기둥구멍 등이 청동기시대 후기 마을유적에서 다수 확인되어 농경생산물의 보관에서의 규모 확대도 발견된다. 집약농경과 더불어 마을의 위계화도 지역별로 진행됨에 따라 중심마을의 출현과 사회분화도 진행된다⁵¹⁾.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보이는 이러한 농경의 확산과 집약화⁵²⁾ 그리고 생업에서 차지하는 농경비중의 증대양상, 유력자의 출현, 지식묘의 확산과 지식묘의 다양화와 차별화 등의 문화변동이나 사회변화⁵³⁾가 동일시기에 진행되고 있다. 지식묘를 포함한 지상기념물로서의 무덤이 출현하고 단독묘의 출현과 입지변화, 무덤군의 확대, 무덤의 다양한 사용을 통한 계층화 표현의 강화 현상 등이 전개되는 속에⁵⁴⁾ 지식묘의 장례의례나 제사

-
- 50) 김권구,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7, 2008, 40~71쪽.
 김도현, 「선사·고대의 농구 조합과 생산력의 변화-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47, 2008, 45~86쪽.
 김도현, 『영남지역의 원시·고대 농경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2010.
- 51) 하진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8.
 류지환,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0.
- 52) 고민정·Martin T. Bale,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79~105쪽.
 김권구, 「한국 선사 농경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계전공 역음, 도서출판 역락, 2018, 9~70쪽.
 김범철,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수도(水稻) 생산의 정치경제: 금강 중·하류역 송국리형 취락체계의 위계성과 도작집약화」, 『한국고고학보』 58, 2006, 40~65쪽.
 김범철, 「농업집약화와 복합적인 사회조직의 발달-송국리형 취락의 형성과 수도작-」,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안승모·이준경 편, 사회평론, 2009, 192~225쪽.
- 53) 김도현, 「청동기시대 농경의 확산과 사회변화에 대한 시론-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학』 15, 2009, 307~342쪽.
 김범철, 『쌀의 고고학-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 민속원, 2011, 231~247쪽.

의례에서 암각화가 사용되는 점은 암각화와 지식묘문화의 창조적 결합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1>과 <지도1>이 보여주듯 청동기시대 암각화는 포항, 대구, 고령, 밀양, 사천, 여수, 보성, 부여 등지에서 확인된다.



<지도1> 관련 암각화유구 분포도

54) 윤호필,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1~20쪽.

이은경,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3.

平郡達哉,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2013.

윤형규, 『대구·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7.

IV. 맺는말

청동기시대 암각화가 갖는 층위관계 속에서의 편년설정이 어려운 점은 성혈 등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시기확정의 주관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여 송국리 1호 석관묘 개석을 포함하여 보성 동촌리 1호지석묘의 개석과 석관 단벽에서 확인된 성혈과 고령 봉평리암각화에서 보인 박편의 제작시기인 청동기시대 토층에 부분적으로 덮혀 있는 층위관계의 확인, 사천 본촌리유적 나10호주거지 출토 동검암각화 지석, 밀양 살내유적II 제1호 지석묘 출토 동검암각화는 청동기시대 암각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층위상의 고고학적 검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사 청동기시대 지상에 노출되었더라도 포항 인비동 16호 지석묘 암각화, 대구 진천동 입석의 암각화, 여수 오림동 5호지석묘 상석의 암각화도 청동기시대 유적에 청동기시대 유물을 모티브로 하거나 그 당시 사용되는 문양을 사용하는 암각화가 존재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암각화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증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검, 축, 동심원(나선형), 성혈 등 다양한 암각화 문양이 사용되고 후기에 더 많이 남한지역에서 사용되는 점이 주목된다. 대체로 장례의례나 제사의례에 주로 사용되던 부장유물과 관련된 모티브를 가진 암각화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암각화의 층위관계나 문양모티브 등의 유사도를 근거로 그 제작시기가 청동기시대임을 확인하고 그 사용과 확산배경 중의 하나가 농경정착사회의 조상제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에 장례의례와 제사의례와 관련된 암각화제작전통이 영남, 호남, 호서지역에 존재하였음은 고고학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을 쓰는데 국립부여박물관과 대가야박물관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윤형원 관장님과 김미경 선생님이 부여 송국리 석관묘

관련 자료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고, 신종환 대가야박물관장님과 정동락 선생님이 고령 봉평리 암각화의 현지방문과 관련 자료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대가야박물관의 정동락 선생님은 필자가 고령 봉평리 암각화를 현지 확인 차 2018년3월21일(수요일) 방문했을 때, 절기와 어울리지 않는 때 아닌 봄 폭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길안내를 해주며 암각화가 입지하는 급경사의 산길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9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봉원, 「반구대 암각화에 표출된 육지동물의 재인식-동물사육 문제와 편년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3, 2012, 133~167쪽.
- 강인구 · 이근무 · 한영희 · 이강승, 『松菊里 I -本文-』(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1책), 국립중앙박물관, 1979.
- 경남대학교박물관 · 부산대학교박물관,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2015.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밀양 살내유적 II』, 2015.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평거3-1지구 유적-III: 본문-』, 2011.
- 고민정 · Martin T. Bale,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79~105쪽.
- 곽종철, 「우리나라 선사 ~ 고대 논밭 유구」,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한국고고학회, 학연문화사, 2002, 25~93쪽.
- 곽종철,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의 수리시설」,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서경문화사, 2010, 231~315쪽.
-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송국리』(특별전도록), 2017.
- 김권구,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7, 2008, 40~71쪽.
- 김권구, 「반구대암각화의 편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67, 2013, 118~129쪽.
- 김권구, 「한국 선사 농경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계전공 엮음, 도서출판 역락, 2018, 9~70쪽.
- 김길식, 「夫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 『考古學誌』 9,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8, 5~49쪽.
- 김도현, 「선사 · 고대 논 의 관개시설에 대한 검토」, 『호남고고학보』 18, 2003, 55~81쪽.
- 김도현, 「선사 · 고대의 경작 유구에 대한 검토」, 『석헌 정징원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석헌정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006, 171~197쪽.

- 김도현, 「선사 · 고대의 농구 조합과 생산력의 변화-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47, 2008, 45~86쪽.
- 김도현, 「청동기시대 농경의 확산과 사회변화에 대한 시론-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영남학』 15, 2009, 307~342쪽.
- 김도현, 『영남지역의 원시 · 고대 농경 연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2010.
- 김범철,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수도(水稻) 생산의 정치경제: 금강 중 · 하류역 송국리형 취락체계의 위계성과 도작집약화」, 『한국고고학보』 58, 2006, 40~65쪽.
- 김범철, 「농업집약화와 복합적인 사회조직의 발달-송국리형 취락의 형성과 수도작-」, 『선사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안승모 · 이준정 편, 사회평론, 2009, 192~ 225쪽.
- 김범철, 『쌀의 고고학-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 민속원, 2011, 231~247쪽.
- 김병섭,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농경유적 재고」, 『경남연구』 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2~29쪽.
- 동양대학교박물관, 『안동 저천리유적』, 2010.
- 류지환, 『대구 진천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0.
- 밀양대학교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 울산광역시, 『울산 아음동유적- II지구 발굴조사보고서』, 2004.
- 복기대, 『동북아시아 바위그림 연구』, 주류성, 2016.
- 송의정 · 은하수 · 최상종 · 윤희남, 『寶城 東村里遺蹟』, 국립광주박물관 · 보성군, 2003.
- 신대근, 「신체문암각화의 해석」, 『과기고고연구』 3, 1998, 65~124쪽.
- 신중환, 「고령 봉평리 암각화의 발견과정」, 『한국의 암각화 II-대구 · 경북편』, 울산암각화박물관, 2012, 248~255쪽.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동천동취락유적』, 2002.
- 윤형규, 『대구 ·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17.
- 윤호필,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

- 사문화센터, 2009, 1~20쪽.
- 이건무 · 최종규 · 박방룡 · 김상면, 「월성군 · 영일군 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1985, 103~157쪽.
- 이백규 · 오동욱, 「辰泉洞 先史遺蹟」, 『辰泉洞 · 月城洞 先史遺蹟』, 경북대학교박물관 · 대구광역시달서구, 2000, 1~90쪽.
- 이상목, 「울산 대곡리 반구대 선사유적의 동물그림-생태적 특성과 계절성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52, 2004, 35~68쪽.
- 이성주, 「마. 지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 · 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 ·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423~441쪽.
- 이영문 · 정기진, 『麗水 五林洞 支石墓』, 전남대학교박물관 · 여수시, 1992.
- 이은경,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3.
- 이제동 · 하진호 · 허정화 · 신순철 · 김지영, 『대구 매천동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 이하우, 『한국 암각화의 祭儀性』, 학연문화사, 2011.
- 이홍종 · 박성희 · 이희진, 『마전리 유적-C지구-』,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한국도로공사, 2004.
- 임세권, 「한국 암각화에 나타난 태양신 숭배」, 『한국암각화연구』 창간호, 1999, 7~26쪽.
- 임세권, 「알타이 지역 암각화에 나타난 태양신 숭배」, 『선사와 고대』 26, 2007, 119~146쪽.
- 장명수, 「암각화를 통해 본 고인돌 사회의 신앙의식-고인돌 암각화에 비쳐진 죽음관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8, 1995, 81~101쪽.
- 장명수, 「암각화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선사인들의 신앙 사유」, 『한국암각화연구』, 창간호, 1999, 27~65쪽.
- 전호태, 「울주 천전리 서석 세선각화 연구」, 『울산연구』 1, 1999, 9~43쪽.
- 전호태, 「고령 장기리암각화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88, 2017, 291~330쪽.
- 정동락, 「고령지역 암각유적의 현황과 성격」, 『고령문화사대계 ④ 예술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2010, 449~569쪽.
- 조영제 · 송영진 · 정지선, 『泗川 本村里遺蹟』,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平郡達哉,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2013.

하진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8.

황수영 · 문명대, 『반구대암벽조각』, 동국대학교박물관, 1984.

Abstract

Examining the Stratigraphic Relation of Korean Bronze Age Petrographs 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ir Spread

Kim, Gwon-gu

This thesis aims to evaluate whether the Korean Bronze Age petrographs are really dated to the Korean Bronze Age or not by way of examining both their stratigraphic relation and their petrograph motifs. In addition it also aims to review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ir spread.

However the examples of petrographs such as not only the covering plate stone of No. 1 stone cist at Songguk-ri of Buyeo County but also that of the stone cist underneath pebble layers of the No. 1 dolmen at Dongchon-ri of Boseong County and the petrographs from Bongpyeong-ri of Goryeong County covered partly from the cultural layer of the Bronze Age, and other two more petrograph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vividly show the existence of the petrographs by stratigraphic relation during the Bronze Age. There are also indirect evidences to imply a tradition of carving petrograph during the Korean Bronze Age, which is suggested by the three examples such as the stone dagger motifs and the stone arrowhead motif on the capstone of No. 16 dolmen at Inbi-dong of Pohang City, the stone dagger motif on the capstone of No. 5 dolmen at Orim-dong of Yeosu City, and the

cup marks and concentric designs on the menhir at Jincheon-dong of Daegu City.

Although the sample sizes are not big enough, it is meaningful to find that carving petroglyphs during the Late Bronze had been practiced in South Korea for rituals such as mortuary practices or ancestor worship practices as the sedentary agricultural communities of the Korean Bronze Age entered into th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further. The development of sedentary agricultural communities with ancestor worship practices might be one of the factors causing the spread of petroglyphs combing with the dolmen culture.

Keywords

petroglyph, stratigraphic relation, the Bronze Age, the sedentary agricultural communities, dolmen culture, ancestor worship practices